

2022 년 4 월 쿠바—베네수엘라 선교소식 2022.04.18

2022 년 4 월 선교소식—베네수엘라와 쿠바한인후예( 손)들 소식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 53:5)

### 베네수엘라 소식



여기가 우크라이나인가 베네수엘라인가? 쿠마나 쓰끄레 주 내 고향 쿠마나이다.



여기가 어디인가? 내가 30 여년간 봉사한 베네수엘라 해양연구소와 동부대학 UDO 이구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전통적인 남미의 부국 베네수엘라는 2000 년대까지만해도 한국에서도 선망의 대상이었다. 남미의 가장 잘 사는 나라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의 포퓰리즘과 마두로의 반미주의로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로 바뀌었다. 인구 2 천 8 백만 중 현재 800 백만명이 나라를 떠났다. 특히 20-40 대 젊은 세대가.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환율은 곤두박질치고 화폐는 종이조각이되고 아뿌레주에서는 게릴라가 출현하였다. 은퇴자들의 사회보장금은 \$10 불 이하로 한(1)달 생활비 \$230 불에 턱도없다 (4 월). 휘발유 값은 \$2/L. 석유매장량은 세계 일(1)위이지만 정유공장이 가동되지않는다. 사회주의정책 20 년의 산물이다 (일부 재송).

### 카리브복음신학원소식

할렐루야! 금년 2022 년 가을학기에 학사과정 36 명, 석사과정 26 명, 특수과정 178 명 총 240 명이 등록하였다. 모든 교수는 베네수엘라 현지인으로 카리브복음신학원 졸업한자들이다. 베네수엘라 신학교는 문교부에 등록이 안 된다. 그러나 본교 졸업자들은 매릴랜드신학교 (안준식 학장) 졸업장과 영사인증 (Apostillos)을 받는다. Zoom 줌 영상강의 위하여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 2022 년 4 월 쿠바—베네수엘라 선교소식 2022.04.18

컴퓨터를 소유하도록 도움을 주고있다. 수업 중 카리브 복음신학원에 케이블 TV 알파와 오메가 (A&Ω)를 통해서... 펜데믹으로 학업에 지장이 많지만 지역분교로 확장하여 수업이 진행되고있다. 현재 여섯(6)개 분교가 설치되었다: 카리아코 분교 (안헬마이스 목사) 엘띠그래 분교 (하이메오두벨 목사) 까루빠노 분교 (세살안드라데 목사) 몬타니따 분교 (호세까스트로 목사) 까사나이 분교 (이그나시오발렌시오 목사) 마뚜린 분교 (다빗로메로 목사). 할렐루야!



쿠마나 본교와 각 지역분교에서 수업하는 카리브복음신학원 학생들: 베네수엘라 미래가 보인다.



학생들은 Marylan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에서 학사인증 Apostillos 를 받고 전세계에서 통용된다.

## 글로벌 어린이재단 Global Children Foundation, GCF 사역화보

GCF 어린이 급식 장학금 일(1)차분 \$5,000 이 도착하여 금년 1 월 부터 5 개 지역: 베베데로 지역 (제일침례교회), 페이알레그리아 지역 (쿠마나 증양침례교회), 엘디께 지역 (예수 축복교회), 까이구이레 지역 (예수선한목자교회), 라꼬빠따 지역 (카리브복음신학원)에 거주하는 12 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점심이 제공되었다. 주당 2 번이상. 이 지원은 새누리선교침례교회 (김태훈 목사) 정경애 권사님 추천으로 성사되었다.

## 2022 년 4 월 쿠바—베네수엘라 선교소식 2022.04.18



하루에 한끼도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영양분이 듬뿍 든 음식으로 배부리 먹고 베네수엘라 시민으로 건강하게 자라서 나라를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소원한다. GCF 지원에 다시금 감사드린다.

### 쿠바동부지역 방문소식

1. 제 1 일, 2022 년 3 월 28 일: 코비트검사 PCR 정경석 선교사만 결과나옴 NEGATIVE
2. 제 2 일, 2022 년 3 월 29 일: 정금자 선교사 ARGENT 코비트검사결과 1 시간만에 나옴 NEGATIVE. 11:55PM 유나이티드 항공으로 새크라멘토 출발하다. ArriveCAN 캐나다 도착서류와 eTa 시큐리티검사 서류완성하다.
3. 제 3 일, 2022 년 3 월 30 일 새벽 6 시경 시카고 공항도착, 오전 8 시 토론토로 출국. 오전 10 경에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 도착. T-Mobile 전화불통으로 12 시까지 Baggage Claim 지역에서 기다리다. 장동철 목사님이 안경애 사모와 10 시에 기다렸으나 전화불통으로 12 시가 넘어서야 만나다. 안 사모님이 Brunch 대접하려고 나오셨는데 미안하구나! 올빼미 식당에서 우거지 해장국으로 배를 채우니 힘이 나는구나. RBC 은행에서 미화 \$1000 을 교환 구입하다. 캐나다 달러로 \$1,287 이다. 쿠바에서는 미화가 좋다고하여 바꾸다. 캐나다 달러도 \$2000 찾다. 달러를 많이 몸에 지니니 언근히 걱정되네.

## 2022 년 4 월 쿠바—베네수엘라 선교소식 2022.04.18

- 제 4 일, 2022 년 3 월 31 일: 안석환 목사님 내외 점심초청하시다. 포식한 후 CROWNE PLAZA HOTEL 돌아와 휴식하다. 내일 출국준비는 장동철 목사님이 하시니 선교가방 4 개만 잘 챙기자.
- 제 5 일, 2022 년 4 월 1 일 금요일: 공항샤틀버스가 있으니 편하다. 12 시경 제 2 터미널에 도착하다. SUNWNG 출국장으로. 장동철 목사님 김경렬 목사님 나오셨다. 간단한 복장으로.

짐 부치는 룰이 바뀌었다. 쿠바 리조트 참가자는 가방 1 개 무료로 보내어진다. 어쿠 작년 12 월 갈적에는 짐을 부칠수없어 금요일 출발 못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출국하였는데...

쿠바 HOLGUIN 공항에 오후 10 시 30 분경 도착하다. 정경석 선교사는 별도로 입국심사 받다. 마지막으로 입국하니 짐 4 개중 내 이름으로 부친 짐이 도착하지않았다. 약품과 한국식품이 들어있는 가방이다. BRISAS GUARDALAVACA HOTEL 도착하니 한 밤 중이다. 우리부부는 1 층에 장동철-김경렬 목사팀은 2 층에 배당되다.

- 제 6 일, 2022 년 4 월 2 일 토요일: 저희들 방 229 호실에 오전 6:30 모여 아침예배하다. 장동철 목사님 인도로. 7 시에 아침먹고 7 시 15 분에 LUIS GUERRA 운전기사와 있구나. 도중에 사탕수수 쥬스 GUARAPO 먹다. 아~ 전번에는 없었는데 경기가 회복되는가보다. MANATI 항구로 직행하다. 김경렬 목사님이 방문하지않았으니. 스페인작가 자녀가족이 여행왔단다. 장동철 목사님이 전도하다. 아무데서나 복음전도는 좀 생각해야지만... 에스민다가 자기집에서 식사하잔다.



한인후손들과 마나띠 신자들과 함께 먹도록 간청하다. MARCELA 집에 도착하니 12 시 30 분이다. 마르셀라와 간단한 대화하다. 집 개조하여 행각으로 사용가능한지? 전 교인 앞에서 선언하다. 캐나다 \$2000 불 건네다. 장동철 목사님이 복음전도 강의하시네. 어쿠 정 사모가 통역하는구나. 내보다 통역을 잘 한다. 앞으로 좀 도와주오. 장 목사님이 7 일 목요일 세미나에 공개적으로 초청하니 7 명이 응하였다. 1. Ernesto Oliva Armas 2. Dayane Rivero Sablam 3. Marbel Colera Colera 4. Esmina Amado Kim 5. Macela Nunes Paez 6. Margarita Ramirez Gamboa 7. Felix Amado Kim. 도시락은 돼지고기 콩밥 살라다 인데 참 맛이좋다. 한인후에 101 년 기념 케익을 생일노래도 부르지않고 짜르는구나. 모든식사경비 미화로 \$150 이다. 에스민다에게 \$200 을 전하다. 재무는 김경렬 목사님이 하시는구나.

돌아오는길에 자동차 앞에 앉으니 햇살이 너무나 뜨겁구나. 호텔에 도착하니 오후 6 시 40 분인데 내가 더위를 마셨는가보다. 전신이 나른하고 힘이 없다. 그냥 쓰러지다.

- 제 7 일, 4 월 3 일 일요일: 아침 7 시 Devotion 김경렬 목사 인도 8 시 아침식사 후 8 시 15 분 호텔출발 알파와 오메가 제 2 침례교회도착. 성도 500 명 후안로드리게스 목사는 동부침례총회 선교부장으로 선임. 예배 후 1415 개인식당에서 점심하다. 식대 예상보다 적게 나오다. 7 명이

## 2022 년 4 월 쿠바—베네수엘라 선교소식 2022.04.18

먹었는데 미화로 백불이되지않는다. 내가 쿠바화폐기있어 일부 결제하고 나머지는 미화로 주다. 미화 1 불당 104 페소인데 식당에서는 90 페소로 정산한다. 공정한율은 미화 1 불당 24 페소다. 7 일 세미나 장소인 MAYRA 자매집으로가다. CALLE PROGRESO #108 e/ Prado y Clon Vista Alegre. 그곳에서 마이라 동서 마리아 자매를 만나다. 시에고데아빌라 거주하는데 훌긴병원에 치료차 왔다. 장동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마리아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하렐루야! 5 일 화요일 시에고데아빌라 다닐로 집에 갈때 테워주기로 약속하다. 4 명의 딸이있는데 한명은 올랜도 한명은 벨기에 한명은 토론토에 막네는 쿠바 시에고에서 함께 산단다. 마이라에게 세미나 참석자 10 여명에게 먹일 식사비와 간식비로 미화 \$50 전달하다. 4 시 30 분에 훌긴 문화회관으로 가다. 지역회장 펠릭스가 기다린다. 50 명분 식사대를 지불한다고 하였는데 30 명도 모이지않았구나. 장동철 목사님이 인사겸 복음전하고 김경렬 목사님이 DIOS TE AMA 노래하며 1 시간만에 끝나다. 호텔돌아오니 6 시 45 분. 내일은 카마구이 갈 예정으로 기사님께 7 시 30 분 전에 도착하도록 요청하다.

8. 4 월 4 일 월요일: 오전 6 시 30 분 229 호실에서 아침모임. 장동철 목사 인도. 오늘 까마구이 비전선교여행위해 기도하다. 7 시 아침식사 후 7 시 20 분 호텔 출발하다. 비엔아벤투라 마을에서 사탕수수쥬스 마시니 힘이난다. 내 쿠바전화가 불통인데 마침 이 동네에 EKTESA 액테사 전화 지국이있으니 복된 날이다. 문제는 내 셀폰이라나다. 그래서 구글폰에 쿠바 전화칩을 넣으니



작동한다. 12 시 50 분경에 산드라 김 집 BENBETA #379 E/ 20 DE MAYO Y PLAZIDA 에는 아무도없다. 코빗감염으로 또 쿠바정부의 지시로 가정집회가 금지되었단다. ㅎㅎㅎ 화도나고 불쾌하지만 어쩌나... 식사를 준비하였는데 어쩌나. 정 사모는 먹지않겠단다. 그러나 우리팀 3 사랑은 음식을 먹었다. 식사비로 \$100 불 뒷뜰 행각 건축비로 \$500 을 건내고 호텔로 돌아오니 6 시 43 분이다. 심신이 고단하여 그냥 쓰러지다.

9. 4 월 5 일 화요일: 오전 6 시 30 분 아침 디보션. 김정렬 목사 인도. 7 시 아침식사 후 7 시 30 분 호텔출발하다. 마이라 집 ALTO PROGRESO \$108 들러 마리아를 태우고 시에고데아빌라로 출발하였다. 오후 2 시경에 DANILO 디닐로집에 도착하다. 기사님이 거리를 잘 기억하는구나. 마리아집은 5 분정도의 거리며 같은 동네다. 집이 엄청 크고 자동차와 차고도있구나.



다닐로집에서 오후 2 시 40 분에 준비한 닭고기 식사 후 2 층 행각지에 오르다. 지난번 12 월 방문때 한인후예들을 위한 향각지음에 반대하드니 마음이 변했구나. 마르가리타 동생이 직장일로 불참하다. 행각 보조금 \$500 불과 식사대 \$100 지불하고 오후 4 시경에 시에고데아빌라 출발하다. 도요다 버스가 고장나다.

## 2022 년 4 월 쿠바—베네수엘라 선교소식 2022.04.18



한시간 후 쿠바정부소유 LA GAVIOTA BUS 에 탑승내고 후 미화 \$40 불을 지불하다. 기사는 자기친구가 LAS TUNAS 로 마중오도록 조치하다. 도중에 식당에 들려 저녁을 먹다. 생선튀김으로 4 명에 7120 (1720X4=7120) 페소를 지불하였다. 라스투나에서 30 분정도 기다리니 시보레 1959 년 자동차가 도착하였다. 쿠손이 너무 좋구나. 에어컨도 잘 들어온다, 훌긴 시내 DAVID PROENZA 목사집에서 4 기통 현대차로 바꾸어타고 호텔에 도착하니 밤 12 시 반이구나.

10. 4 월 6 일 수요일: 6 시 30 분 기도회 후 7 시 아침식사 후 루이스 아침밥 챙겨 7 시 30 분에 SANTIAGO DE CUBA 로 출발하다. 8 시 30 분경 기념탑 도착 사진을 찍고 조금지나서 오른쪽 뒷바퀴가 빵꾸나다.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 끼웠으나 바람이 빠져있구나. 모두들 걱정이다. 그러나 “쿠바에는 쿠바의 해결방법이있다”고 안심시켰다. 잠시 후 AGROINDUSTRIA 농업공사차가 지나면서 타이어 공기를 넣어주었다. 12 시 10 분경 동부 쿠바침례총회 CBCOriente 도착하다. 곧 식당으로 초대하며 대화를 계속하다. 총회장 호수에로드리게스 JOSUE RODRIGUEZ, 선교부장 JUAN RODRIGUEZ 총무서기 ARAM RODRIGUEZ 그리고 우리 5 명 함께 동석하다. 쿠바동부총회가 내년 2 월인데 장 목사님은 정소년집회 가능성을 물어보고 예산을 알려달란다. 호수에 총회장이 금년 9 월에 토론토 방문 할 예정인데 그때 예산을 갖고 온다고하는구나. 호수에 총회장은 6 년째 봉사 중이며 다음에 다시 출마한다. 쿠바총회장은 유급 총회장이다.

오후 3 시 30 분에 SBCOriente 동부쿠바신학교를 방문하여 환담하다. 쿠바혁명때 신학교에 혁명군이 점령하여 임시폐교되었고 복구를위하여 많은 신자들이 금반지나 패물을 헌금하여 신학교를 살렸다고한다. 7-8 월 방학때 재학생 58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돼지 2 마리 바베큐 자금으로 \$200 불과 음료수 자금으로 2000 페소를 헌금하다.

4 시 50 분에 신학교 출발하여 마르까네 한인후예들 모임에 도착하니 오후 6 시로다. 갖고 온 보따리 전부 풀다. 한국음식 옷가지며 학용품 진통제등을 나눔으로 모두들 행복한 시간이다. 장동철 목사님의 인사겸 복음강의와 김경렬 목사님 DIOS TE AMA 찬양으로 또한 나의 83 년 생일 케이크도 등장하다. 행각 착수금으로 \$1000 불과 식사준비료로 \$200 을 주다. KATY KIM 과 CELSO KIM 에게 내일 세미나 참여 여비로 1000 페소를 드리고 호텔로 돌아오니 10 시가 넘었구나.

11. 4 월 7 일 목요일: 6 시 30 분 229 호실 모임 아침 경건시간 후 7 시 아침식사. 7 시 30 분 출발전 장동철 목사 출발금지. 쿠바 시큐리티본부에서 조사하도록 명령받아다고하여 8 시 30 분경에 우리만 먼저 세미나 장소로 출발하다. 마이라 집에는 모두 도착하였다. 마나띠 7 명 마르까네 2 명 훌긴 2 명 모두 11 명이다. 기사 LUIS ALBERTO GUERRA HIDALGO 를 호텔로 보내다. 오전 중 강의는 성경공부의 5 단계와 빌레몬서와 로마시대 노예제도의 역사적 배경등으로 오전 중 강의 환료.

## 2022년 4월 쿠바—베네수엘라 선교소식 2022.04.18

점심 후 1 시경에 장동철 목사 도착하다. 문제는 직업이 목사라고하지말고 교사/교수라고 하여야 함. 식사 중 예배나 가정교회등 의심이 갈만한 대화는 하지말아야 함. 점심 후 2 시에 복음강의 시작하다. 돌아가는 형제들 중 마나띠 1000 페소, 훌긴 500 페소를 지불하다. 장동철



목사는 심문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받았다. 앞으로 종교비자로 들어와 교회나 가정교회 방문하면 문제없다고 소개함. 누가 몰라서 그러냐. 4 시 50 분 호텔로 돌아와 운전수에게 미화 \$600 지불하다. 하루 \$100 볼. 우리들은 6 시에 함께 식사하며 장래

쿠바방문방법을 의논하다. 결론: 관광비자로 입국하는것이 가장 실속있다. 종교비자는 상당히 오래전에 참가자가 경정되어야 하는데 교회실정으로 어렵다. 쿠바는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니 입을 조심하자!

12. 4 월 8 일 금요일 토론토로 귀국: 공항에서 문제발생하다. ArriveCAN 요구하다. 어쿠 없어진줄 알았드니 잘못해석하였다. 공항에서 다운받아 처리하는데 3 명은 나왔다. 그런데 나는 나오지않는다. 선영대표자에게 연락하니 종이 ArriveCAN 을 기재하여 도착하여 캐나다 입국요원이 결정한단다. 도착 비행기가 딜레이되어 한 시간정도 늦었다. 아~ 하나님 은혜로다. 간신히 출국수속 마치니 세관금열이다, 나를 특별지목하여 모든 가방을 샅샅이 뒤지고 마약검사 약품으로 확인하는구나. 나를 마피아 두목으로 지명하는가보다. vip 가 되었다.
13. 4 월 9 일 토요일: 새벽 1 시 20 분 토론토 도착하다. 모든절차 마치니 2 시 20 분이다. 입국절차 중 ArriveCAN 심사자가 한국사람이다. 완전히 기재하지않은곳을 잘 써 주는구나. 장동철 목사 사모와 따님이 마중 나왔구나. EST Hotel 에 도착하니 3 시 30 분이다. 그래도 잠시 눈 붙이자. 오전 11 시에 장동철 목사님 도착하다. 윤영일 원로목사님이 아침을 사신다니 미안하고 고맙구나. 이번에는 KOREA HOUSE 식당이다. 우거지가 더 많고 국물이 더 탁하구나. 오후 2 시에 힐튼호텔에 체크인하니 너무 좋다. 저녁은 식당에서 해결하며 잘 쉬었다.
14. 4 월 10 일 일요일: 처음으로 다이찌 운동하니 몸이 풀리는것 같다. 12 시에 장 목사님 픽업하려오다. 너무나 힘든 목회다. 교인들이 다 젊은 부부나 청년들뿐이다. 2 시 예배에 안석환 목사 내외분 참석하였다. 3 년째 해에 은혜와 평강교회 파송장 받다. 내 평생 처음으로 파송교회가 생겼다. 아멘. 4 시 친교시간에 자장밥 먹다. 참 맛있다. 시장이 빈찬이다. Roxwell 약국에서 Argent 코빗검사 후 15 분만에 음성판정 결과 받다. 다음날 출국이 가능하다. 아멘!
15. 4 월 9 일 월요일: 다이찌로 피로회복 준비하다. 9 시에 호텔 체크아웃하고 10 시에 이정문 자로님과 그릴에서 만나다. 식사량이 너무 많지만 다 먹었다. 맛도 좋고 기분도 좋으니까. 이 장로님이 행각자금으로 \$6K 현금하신다. 마나띠 독립가옥을 9 천불을 요구한다. 에스민다에게 가격을 내리도록 흥정하다.

## 2022 년 4 월 쿠바—베네수엘라 선교소식 2022.04.18

안석환 목사님과 사모님이 식사대점할려는데 말리다. 도저히 먹을수가없다. 티 타임으로 2 시경 만나서 5 월에 바라데로에 선교여행가도록 조언하고 3 시경 출발하다. 공항으로.

### 쿠바한인후예방문 화보정리

#### 쿠바한인후손들 사는 마을/도시



서부: 아바나 284명, 마탄사스 261명, 까르데나스 291명  
 중부: 씨에고데아빌라 25명, 까마구이 141명  
 동부: 마나띠 51명, 홀긴 56명, 마르까네 73명



이번 동부지역 한인후예방문은 마나띠 까마구이 씨에고데아빌라 말까네 홀긴가정교회 방문이다.



동부지역 수송수단 광경: 마차 자전거 오토바이 추력 19 세기를 연상. 화장실 오픈하니 감사. 사용료 3 페소.



쿠바경제가 다시 살아나나? 정류소 근처에 잡상인들이 많다. 마을 한마루 천페소 땅콩과자 70 페소 커피한잔 20 페소.



## 2022년 4월 쿠바-베네수엘라 선교소식 2022.04.18

쿠바는 관광객 없으면 살수없는나라다. 그러나 코빗으로 전국이 닫혀있다. 2021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외국인들 입국이 허용되었지만 공항은 여전히 텅텅 비어있다. 검색도 지방으로 갈수록 엄하다. 훌긴공항은 최악의 공항이다. 아직도 전 근대적 사고방식이다. 쿠바를 외침에서 지킨다고. 아무 근거없다. 관료주의는 엄하다. 매번 입국때 마다 느끼는 점은 자유케하라다. 언제쯤 될지 모르지만...



정류소 식당 한그릇에 1700 페소다. 사탕수수쥬스 구아라포 잡상인은 주걱까지 팔지만 누가 사냐?



은혜와 평강교회 파송장 전달식: 코로나 펜데믹으로 3년이니 지체되었다. 이정문 장로 행각지원금 수령(중앙).



소형 현대차 카이어 빵꾸로 걱정하지마소. 농업성 추력이 도우사 공기넣고 동부침례총회방문(중앙)

## 쿠바사정 코빗감염과 한인후예(손)들 소식

카스트로시대 끝. 형 피델 카스트로는 2016년 사망. 지난 12일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미겔 디아스 카넬 혁명 2세대에게 이양하였다. 새 의장은 전쟁을 경험하지않은 세대다.

## 2022년 4월 쿠바—베네수엘라 선교소식 2022.04.18

친 서방 정책이 나오도록 기대한다. 관광수입이 절실하며 10-30 대 청소년들은 혁명구호에 관심이없다. 빵과 인터넷이 더 중요하다.

쿠바 수도 아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2019년 2월 1일 부터 봉쇄되었다. 아바나 밖으로 나갈 수도, 다른 도시에서 아바나로 들어 올 수도 없다.

총 46 명의 한인후손들이 코로나열병에 감염되었고 그 중 8 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르까네 목녀 까디 어머니님, 까르데나스 목녀 아델라이다 남편 호세 공군예비역 중령 아들 이류리에타 김등.

아직도 외국인은 집을 살수도없고 쿠바인도 한가정 당 한집만 구입이 가능. 독립된 가정교회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며 렌트도 쉽지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일 하신다. 한 지역 한인공동체건물 구입을 도울 손길(입양)을 기다린다. 쿠바정부의 기독교 억압정책으로 선교가 더욱 어려워지지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한다. 카리브신학교 출신 선교사 파송 중 인데 문제가 많다. 베네수엘라 국적은 쿠바에 비자없이 입국하였는데 사정이 달라졌다. 국력이 떨어지니.

요즘 70 대 老人은 신중년(新中年) 80 대 老人은 초로장년(初老長年)이란다. 초로장년된 나에게 건강주시고 기회 주시어 베네수엘라사역 현지인들에게 전수완결하고 남은 여정 쿠바선교에 올인 할 수 있도록 은혜 배푸소서!

### Petición de Oraciones 기도제목

1.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정치위기 (독재정치) 생명위기 (코로나 19) 생활위기 (억만% 인플레이션) 극복하고 21N 지방 선거 잘 정리되도록.
2. 카리브복음신학원 케이블 TV 개설로 복음전파에 도움되고 학생들 온라인강의가 가능하여 베네수엘라 목회자양성 주축되도록.
3. 카리브복음신학원 이사님으로 섬길 지원자를 보내소서.
4. 쿠바한인후손들 복음전도로 생명길 선택하고 어려운 생활환경 가운데도 굳건히 믿음생활 계속하여 천국의 기쁨을 향유하도록.
5. 쿠바입국 선교탄압 완화되고 8 개지역 1230 여명의 한인후손들 섬기는 가정교회 지도자 형제들 제자훈련 가능하도록.
6. 쿠바한인후에 지역공동체를 입양할 교회나 단체를 선정 해 주세요.

### Contacto 연락처

- Venezuela 베네수엘라: Seminario Evangelico del Caribe 카리브복음신학원. Calle Niquitao #42, Cumana, Venezuela. Rev. Kyung Suk Chung 정경석 email: [kyungsukchung@yahoo.com](mailto:kyungsukchung@yahoo.com) +53 414-773-1443, 0412-305-0190
- Cuba 쿠바 +53 55.79.32.63. [kchung@nauta.cu](mailto:kchung@nauta.cu)

## 2022년 4월 쿠바-베네수엘라 선교소식 2022.04.18

- USA 미국 +1 415-712-6023 [kyungsukchung@gmail.com](mailto:kyungsukchung@gmail.com) 220 NEVADA AVE, ROSEVILLE, CA 95678  
카톡 KSCHUNG0223 whatsapp 통화가능
- 웹: [www.seminarioevangelicodelcaribe.blogspot.com](http://www.seminarioevangelicodelcaribe.blogspot.com) 신학교 정보가능. 업그레이드 중

### 쿠바방문 되새김

1. 실제적으로 쿠바는 열려있는가? 열려있기도하고 통제받기도한다.
2. 적어도 6개월전에 방문결정필요.
3. 모든 물건이 한인후예들에게 필요하다.
4. 캐나다가 축복의 통로다. 비자도 공짜고 리조트사용 가능하니.
5. 자동차는 편한것 고르자. 경비 걱정말고.
6. 입국시나 현지인과 통회시 가정교회 사역 말 조심하자.
7. 쿠바의 모든사람은 정보원이다.
8. 짐은 가볍게 그러나 모든것 챙겨라. 쿠바에는 없는것이 많다.
9. 모든것 기록하라. 지나면 아물 아물하다.
10. 하나님 섭리에 마끼자. 하나님은 언제나 일 하신다.
11. 기도하고 준비하자. 유비무한,
12. 교회지도자 방문권유하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 은혜와 평강교회 비전선교 재정보고

지출 목록	금액	출지출
항공과 숙소 (목회자)	\$ 1,165	\$1,165
현지 교통비	\$ 1,000	\$ 807
현지 사역비 (가정교회 식사, 사역비)	\$ 1,000	\$ 930
가정 교회 기초 의약품 전달	\$ 1,000	\$ 1,000
가정 교회 리더 초청 세미나	\$ 500	\$ 763
총액	\$ 4,665	\$ 4,665